

마음에 불을 지피는 봉사의 기술

고려의대 병리학과

김 한 겸

들어가면서

중산층의 정의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하며, 약자에 도움을 주는 더불어 삶을 즐기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비평지를 정기구독하면서 개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영국은 외국어 하나쯤 구사하면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며,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남들과 다른 요리 기술이 있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프랑스의 경우 퍼어플레이 행위와 함께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비독선적 행동을 하며 약자를 두둔하지만 강자에게는 대응하면서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 정의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중산층을 주택 30평 이상 보유하고, 월 소득 600만원이상, 매주 4시간 이상 취미나 레저 활동을 하며, 자기계발로 월 10만원이상 투자하며, 월 5만원이상 기부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최정점에 있는 지식인으로서 의사들은 평소 한국인의 건강지킴이로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할 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소개하곤 한다. 봉사활동은 체험과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과 성숙한 자아 형성의 계기가 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미래의 리더로서 성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의사처럼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목표설정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진료만을 봉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봉사와 자원봉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를 빈곤, 질병, 소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적 서비스라 해석하며, 궁극의 목표를 인간 사랑을 통한 나눔공동체 사회 실현에 두고

있다. 자원봉사(自願奉仕, voluntary service)는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남을 위해 섬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넷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돋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교회용어사전에서는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volunteer work)란 ‘스스로 원해서 나라와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발성에 기반을 둔 실천행위 그 자체이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상활동(일본 현대 사회복지사전)”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섬기는 대상이나 대가성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보상은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끼거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고, 금전적으로 소정의 교통비와 숙식을 제공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중고교에서는 진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봉사의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의사들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다.

봉사의 기술

1. 우리나라 전통적인 봉사활동

두레: 농촌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과 채집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으로 상부상조

품앗이: 농촌에서 노동력 교환

계(契):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공동작업, 제례 등 상부상조

향도(香徒): 지방 향리 중심의 자발적 협동조직. 당초 삼국시대 불교신도의 결사단체로 불상·사찰의 조성, 법회·보시 등에 대규모적인 노동력과 경제력을 제공하였으나, 점차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 (예, 신라 김유신 중심의 용화향도(龍華香徒))

2. 현대적 농촌봉사활동

자발성·무보수성·복지성 등의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기독교사상이 유입된 1900년대 이후 태동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연계한) 야학, 농촌봉사(계몽)활동 등

1947년, ‘4H운동’: 미군정 농무관 Anderson대령이 경기도 정책자문관직으로 재직하면서 세계적 농촌청소년운동 보급

1960년대 이후 대학 중심의 농촌봉사활동: 4·19이후 여름방학 중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민계몽대를 조

직하여 전국의 모든 농촌의 행정구역을 각 대학별로 분담하여 전개

1971년 새마을운동 : 자원봉사정신의 확산에 크게 기여

1986년 농활 : 6·29 민주화선언 이후 대학생들의 농활 분격적 부활

2009년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KUSSO) 농촌희망가꾸기 재능기부시작 (영어·과학캠프) : 노력봉사 위주의 농촌봉사활동의 변화 유도

3. 프로보노 (pro bono)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 라틴어

로마시대 지도층의 공익을 위한 헌신과 기부를 강조하기 위함.

서구사회: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보수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칭” -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 (연간 50시간이상 사회공헌활동 요구)

(한국, 2001) 변호사법 개정 - 의무적으로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연간 일정시간 이상 요구.

*전문성 기부: 현재 의료·교육·경영·노무·세무·전문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됨.

**비전문성 특기 기부: 유명인이나 대기업, 전문직 종사자에서부터 평범한 일반인까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전문기술이 아니더라도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부

4. 볼런투어리즘 (Voluntourism)

‘자원봉사자(volunteer)’와 ‘관광(tourism)’이란 말의 합성어이다. 2000년대 말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말 그대로 휴가 기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재해를 입은 곳에 가서 자연 복원 활동을 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구조활동을 하거나, 장애인재활센터, 푸드뱅크, 농장 등에서 일손을 돋거나, 교육과 보건 등이 낙후된 저개발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기거하며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관광도 함께 즐기는 여행.

인도주의와 환경보호 등을 표방하는 NGO와 학술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부터 여행사와 호텔업계가 실시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함.

볼런투어리즘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방문한 곳의 사회와 환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지구촌 곳곳의 삶과 문화를 배우며 보람을 느낀다.

병리의사가 왠 봉사?

2005년 이전까지 병리의사들에 의한 봉사활동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해외의료봉사는 임상의

사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우수한 의료기술과 풍부한 약품을 갖고 하루에 수백명씩 진료하여 신문지상에 활동들이 소개되곤 하였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는 공동으로 몽골 병리의사들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07년부터 몽골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6년부터 바오밥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마다가스카르 병리의사들을 위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으로 외국의 병리의사와 병리사들이 우리나라 병리의사와 병리사들에게 5년 동안 세포병리교육을 하였다. 그 후 대한세포병리학회가 결성되었고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자체 교육에 힘입어 80년대 당시 여성에게 제일 많았던 자궁경부암이 현재는 6위로 감소되었다. 몽골프로젝트와 바오밥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받았던 국제적인 도움을 되갚고자 시작되었다.

1. 몽골프로젝트

몽골프로젝트는 몽골병리의사들이 스스로 몽골사람들의 질병을 조기진단 할 수 있도록 병리·세포병리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1980년대 WHO의 도움으로 외국의 병리의사들이 5년 동안 한국의 병리의사들에게 세포병리교육을 제공하여 조기암 검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몽골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되갚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몽골프로젝트는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2007년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몽골에 자궁경부암을 세포진단할 수 있는 병리의사가 국립암센터에 근무하는 몇 명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100명에 가까운 병리의사들이 세포 및 조직진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 병리학회를 중심으로 매년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에 몽골병리학회지가 발간되어 몽골에서의 병리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2005년 여름에 몽골 국립대 고고학자들과 정기스칸 일족의 유물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활동에 참여하여 몽골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Mobio라는 한국계 검사센터가 시행하는 몽골의사들을 위한 세미나에 연자로 참여하면서 몽골의사들과 접촉이 시작되었다. 여러 번의 세포병리강의를 통해 몽골 여성에서 제일 흔한 암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자궁질도말 세포검사를 통한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으로 정해졌다. 필자가 2007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으로서 몽골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문사에 전화하여 우리가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하니 기자 월 “의사들의 해외봉사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병리가 웬 봉사?”라는 반응이었다. WHO와 관련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바로 기사로 채택되었다.

2. 바오밥프로젝트

바오밥프로젝트는 마다가스카르의 병리의사와 병리사들에게 세포병리 교육을 시행하여 스스로 말라가시 국민들의 암과 질병을 조기진단하도록 도와주는 대한세포병리학회의 장기프로젝트이다. 바오밥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말라가시 의료선교사인 이재훈선교사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36명의 병리의사와 병리사들이 참여하였지만 2017년 1월에

진행된 두 번째 교육에는 40명의 병리의료진을 포함하여 산부인과의사, 호흡기내과의사, 종양내과의사, 안타나나리보의대생 및 외국인 가정의학의사와 간호사까지 8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니 대단한 성공이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강의가 진행될수록 엄청 질문이 쏟아진다는 점과 자기네들끼리 암과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협력하자고 논의한다는 점이다. 작년의 교육에 대해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이런 점이 말리가시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향후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가을에는 마다가스카르 국립의대에 근무하는 병리전문의를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초빙하여 3개월간 병리전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몽골에서의 봉사활동이 10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세포진단이나 조직진단에 종사하는 병리의사의 수가 100명 가까이 증가되어 원래 몽골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봉사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병리의사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즉, 나라별로 병리의사는 두세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의과대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다. 더구나 말라리아와 HIV감염에 치중하느라 여성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암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암 조기진단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내가 참여하고 기획한 봉사활동 또는 협력기관

1.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창단과 활동

필자는 2008년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KUSSO, Korea University Social Service Organization)을 창단하였으며, 초대 부단장으로 3년간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국내봉사활동은 농협과 함께 진행하는 농촌희망가꾸기 재능기부로서 농어촌 지역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과학캠프이며, 화재로 인해 엄청난 재해를 입은 낙산사 주위의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외봉사활동으로는 피지 나세임비투빌리지에 도서관을 지원주고 사서교육을 포함한 문화교류활동, 러시아 깰미끼아공화국과 아디게야공화국의 고려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우간다 중 고등학교에 컴퓨터 보급과 IT교육 등 다수 있다.

2.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및 초대 센터장

2008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초대 센터장을 맡아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물 보완과 장애학생 도우미 활성화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의사의 신분으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장애학생들에게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점자명함 제작,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 해외탐방 등을 시행하였다. 장애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로 인하여 전국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다.

3.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대학 사회봉사의 허브로서, 한국 대학생들의 국내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즉, 대학 및 전문대학이 사회봉사 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이다. 또한 247개 대학을 회원으로 보유한 최고의 대학협의회이다. 대사협은 회원교 대학생들이 재학중 국내봉사와 해외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봉사는 단기봉사와 중기봉사가 있다. 단기봉사는 2주간 진행하며 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들을 보낸다. 중기봉사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5개월간 진행되는 전공연계 프로그램이다. 2017년 여름에는 전국에서 선발한 307명의 대학생들을 7개국에 11개팀으로 파견하였다. 바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낸 학생단원들은 훌린 땀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바로 자신들이 가야할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미래에 대한 꿈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들은 국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사회봉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 대사협은 학생 본인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정신’을 배우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또한 인격을 함양하여 세계시민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대사협은 사회봉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사협은 대학 및 전문대학이 사회봉사 교육과 활동에 대한 상호 협조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적 윤리적 제문제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협의,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대사협의 기능은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의 육성 발전, 대학 교육과정과 사회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개발,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수 지원, 국내·외 사회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 및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다.

2) 대사협의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 회: 전국 247개 대학 (국공립대학 40 + 사립대학 207)

이사회: 회장 등 총 18명(감사 2명 포함)

운영위원회: 7명

전문위원회: 18명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4. 다섯 번의 월드프렌즈코리아 (World Friends Korea) 청년봉사단장

전국의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들로 구성된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을 이끌고 필리핀 다바오팀 단장(09),

우간다포트포탈 의료봉사팀 단장(11, 12), 베트남 빈시팀 단장(14), 네팔 다딩 지진재난지역봉사팀 단장(15)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협력관계 구축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으로 특화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박상은 안양샘병원장이 대표이다. 주요사업으로는 1. 아프리카 지역 AIDS와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 2. 남부 아프리카에 의대 및 IT공대 설립으로 전문인 배출, 3. 아프리카 현지인 선진교육을 통한 빈곤퇴치, 4. 수준 높은 병원 설립으로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있다. 현재 탄자니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시행하는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동부 및 남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선교센터와 봉사활동을 둘러보면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포상

2009 0407 제37회 보건의날, 대통령 표창

2012 1227 『제9회 국제바이오 현미경사진전』 대상 (“무릎 관절 속에 ‘흰 수염 할아버지’ 계시네”).

2013 120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2014. 0415 극지연구소 공로상, 극지연구소

2015. 10. 27. 대한적십자사 창립110주년 기념포상, 박애장 (은장)

2016. 12. 09. 자랑스러운 고대체육인상 특별상

마치면서

필자는 대학교수로서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고, 고려대학교 뿐 아니라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봉사지역도 국내외의 다양한 곳에서 펼치고 있는데 동남 아시아, 러시아 남부, 아프리카 우간다, 피지까지 활동범위를 넓혔다. 또한 병리의사로서 몽골프로젝트와 바오밥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의사들이 전공분야를 벗어나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1. 먼저 참여하고 싶은 국가를 정하고 코이카나 주변 종교재단을 통해 정보를 구하거나,
2. 주위 동료 또는 봉사전문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3.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아프리카 전반에 걸친 상황을 확인한다면 어렵지 않게 봉사할 곳과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